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3
River & Culture



이인식 | 한국습지네트워크
공동대표
(woopoles@choi.com)

토평천의 미래

토평천은 우포늪을 품고 있는 하천이다

1. 머리글

토평천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이다. 경상남도 창원군에 소재한 화왕산과 발왕산에서 발원하여 의령군과 함천군의 경계지점을 바라보며 국가하천인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토평천을 일반인들이 잘 알도록 설명하면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람사르지정 습지인 우포늪을 품고 있는 하천이다. 이미 2008년 국제습지보전환경회의인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를 개최하도록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륙습지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만든 <창녕지도>에는 牛浦(우포)와 그 서북쪽에

木浦(목포)와 龍湖(용호), 동북쪽에 沙浦(사포)를 그려 두었다. 우포와 목포는 지금도 그대로 부르고 있다. 옛적에는 토평천을 비롯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지천들은 배후습지들을 많이 품고 있는 셈이다. <창녕>에는 천지를 제외하면 한반도에서 가장 큰 우포가 있다.는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지지도에 기록이 나온다. 이처럼 우포늪과 토평천(土坪川)은 떼어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토평천의 옛적 이름은 물슬천(勿瑟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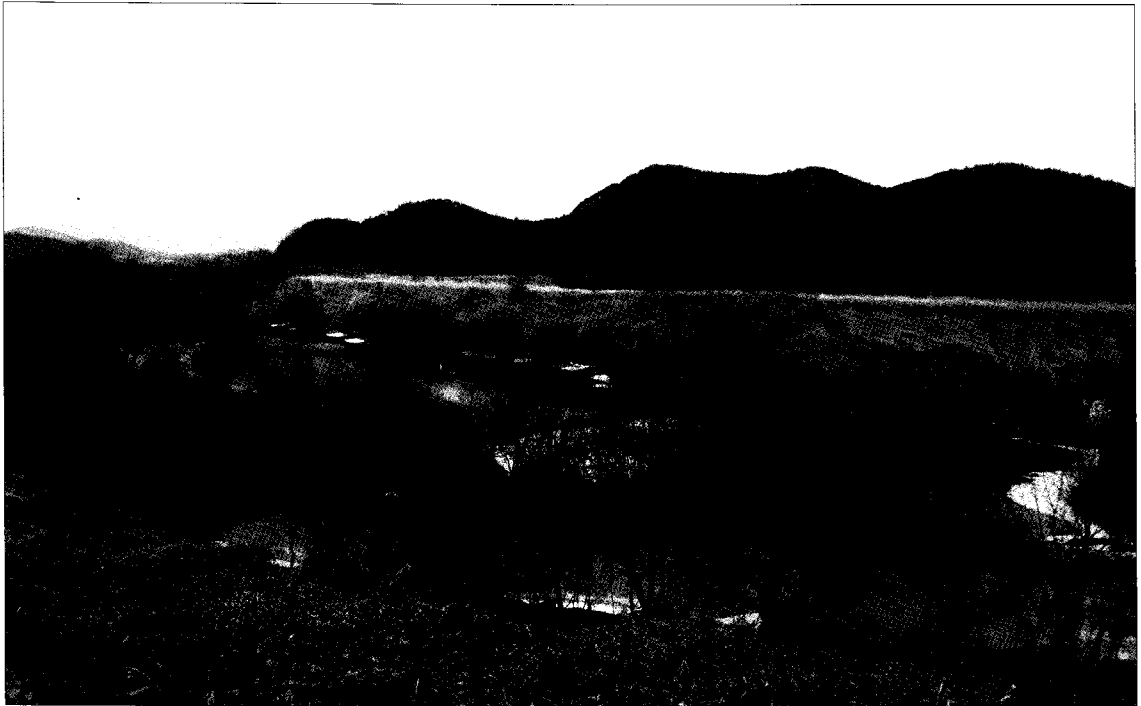
어쩌면 물슬천은 우포늪을 안고 있는 비파(瑟) 모양의 하천일지도 모른다. 고암면 왕미마을 뒷산의 고분군이 위치한 산 아래에는 절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과거 물길의 흔적이다. 토평천(물슬천)의 물길이 왕미마을을 통과하여 흘러갔는데 조선시대 대흥수로 현재 대지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토평천으로 물길이 바뀌었다고 전한다.

2. 토평천의 생성과 낙동강

현재 토평천의 품속에 자리한 우포(소벌)는 낙동강 본류에서 동쪽으로 7km 가량 떨어져 있다. 발왕



(그림 1) 고지도에 나타난 우포 주변



〈그림 2〉 우포늪을 품고 있는 토평천

산과 화왕산에서 시작해 창녕읍을 지나온 토평천이 이 늪으로 흘러 들어왔다가 낙동강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전에는 낙동강의 유입부인 현재 성산리에 이지(梨旨) 혹은 '배말리'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토평천의 중·하류부는 거의 강변 배후습지인 소택지가 즐비했을 것이다. 그 근거로는 1만5천 년 전 빙하기가 최대였을 때 해수면(바다의 수면)은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다. 이때 남해바다는 낙동강 하구에서 60km나 떨어져 있었고 낙동강과 우포늪은 폭이 좁고 깊은 골짜기였다. 골짜기의 깊이는 퇴적암층이 누워있는 지하 10m였거나 또는 그보다 훨씬 깊었을지 모른다.

빙하기가 녹기 시작하면서 1만 년 전에는 바닷물이 현재의 해수면보다 25m 아래, 8천 년 전에는 10m 아래까지 차올랐다. 바닷물은 6천 년 전에서야 현재의 높이에서 안정된다. 빙하기 녹으면서 육지의 골짜기였던 낙동강 계곡으로도 바닷물이 들어와 낙동강 하구에서 160km 떨어진 경북 고령군 88고속도로 고령교(88고속도로)까지 바닷물이 넘실댔다. 낙동강은 이때 강이 아니라 내륙의 좁은 만(灣)이었다.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홍수가 나면 골짜기 상류에서 낙동강을 따라 흘러내린 돌과 흙이 지리산 계곡에서처럼 계류에 실려 멀리 옮겨졌다. 그러나 바닷물이 들어온 뒤에는 좁은 만의 바닥에 쌓였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바닥이 해수면보다 높아지고 그 사이를 따라 강이 흐르게 됐다. 이후 강의 양쪽에 모래와 흙이 쌓여 비옥하고 넓은 둑(자연제방)을 만든 것이다. 토평천이 우포늪으로 실어온 흙과 모래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해발 고도가 9.6m인 반면, 하류인 낙동강 쪽 자연제방은 홍수 때 실려 온 퇴적물이 작은 동산처럼 높게 쌓여있다(해발 14~17.5m). 홍수가 나면 낙동강물이 우포로 역류하고 평상시에도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 일대는 물이 고여 있는 늪이 됐다(이민부, 2008).

우포를 보면 1910년까지 우포, 고포, 사지포가 거의 연결되어 있었다. 고포는 그 뒤 목포와 쪽지벌로 분리가 된다. 갈수가 되면 분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호숫가에는 수초가 많은 수변생태계를 형성하였고, 홍수 시에 범람하면 모든 호수가 연결되고 있고, 지도상에는 연결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1976년도의 위성사진을 보면 목포와 쪽지벌(그 아

래에 더 작은 호포도 있음), 사지포는 제방 건설로 각각 우포 늪과 분리되어 있었다. 배후지에서 내려온 토사들이 퇴적되고, 또한 제방건설로 역류나 범람이 감소되면서 소택지(얕고 수초가 덮인 상태)가 되거나 농경지로 이용되어 호수의 면적은 줄어들었다. 2002년 위성사진 분석에 의하면 사지포도 다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현재는 우포 외에 목포 정도가 잘 남아 있으며, 우포늪은 1997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우포(牛浦)늪은 원래 소가 물을 마시는 형국으로 소벌이라고도 하고, 목포(木浦)는 나무벌로, 사지포(沙旨浦)는 모래벌이었고, 쪽지벌은 작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우포가 누포(漏浦)로 표기되어 물이 넘치고 있음을 표기했고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여지도에서 토평천은 불슬천(勿瑟川)으로 표기되고 있다(이우평, 2007).

3. 토평천이 만든 삶과 생태, 문화유산

토평천은 옛 창녕의 지명인 비화가야-비사벌 등의 역사를 도도한 물의 흐름처럼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미 어찌면 그보다 오래된 역사의 유물인 한 척의 배가 발견된 인근 청도천의 7천 년 전의 역사적 흐름도 지켜보았는지도 모른다. 창녕은 흔히 물과 불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즉, 서쪽은 낙동강물이 북에서 남으로 굽이쳐 흐르고 동쪽은 불기운 왕성한 화왕산 줄기가 남북으로 뻗어 있어 물과 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다. 화왕산의 불기운과 발왕산에서 발원한 불기운은 토평천이 만든 우포늪을 거쳐 낙동강을 거쳐 남해 바다로 흘러간다. 토평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곳곳에서 옛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저 뒷골(이산마을) 노인들이 '막나리'라 부르는 토평천가의 마지막 나루터에는 물산이 풍부하고 큰 장터가 만들어지면서 곳곳에 주막과 사람들의 이동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지금이야 흔해빠진 소금이지만 50년 전만해도 강을 따라, 산을 넘어 뱃짐을 지고 마을을 오가는 소금장수 이야기도 촌로들에

게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소위 스토리텔링이다. 객주의 작가 이주영의 표현대로 "저 아래 강 따라 늦은 봄이면 배가 소금을 오본이(가득) 싣고 안동까지 갔거든. 봄 되면 장을 담으니까 소금이 오는 거지. 배가 내려갈 적엔 나락 팔아서 갔제. 물이 얕으면 사람 대씨(여럿)서 끌거나 배쪽대로 밀고 그래 올라가더만..." (MK뉴스에서) 그래서인지 과거 늪이 있던 곳은 강과 소통하는 포구이기도 했다. 김해 해반천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곳 토평천을 비롯한 낙동강의 지천들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겠다.

낙동강을 우리 고대문화의 발상지, 자연생태자원의 보고, 한민족 문화의 물줄기라고 한다. 창녕군(빛벌)은 옛 가야의 땅이며 낙동강의 중류지방이면서 경상남도의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낙동강 하류부인 김해 역시 금관가야의 옛터로서 해반천만 해도 낙동강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강어귀로 남해에서 들어오는 배는 해반천 물줄기를 따라 봉황대 선착장에 닿았다고 전한다. 밀물이 되면 봉황대 항구에는 낙랑·가야·왜 등의 큰 배들이 진을 치고 각국의 사신들과 장사꾼들이 모여들어 거래를 펼쳤다고 한다. 이후 조선시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내륙의 많은 재화와 물산들이 강 물길을 통하여 모여들고 교역되고 수송되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강가의 많은 나루터에는 상품의 중개 역할을 맡은 객주와 함께 보부상들이 들락거리고, 배와 뱃사공들, 말과 행인들을 먹고 재우는 마방과 여각 객주집이 즐비한 수운의 중심지로 '해동지도'에는 소개돼 있다. 특히 조선 중기부터 5일장이 개설되어 나루터를 중심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번창한 나루터는 200여 척의 돛단배가 강을 가득 채우고 왕래하였다 한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낙동강가의 늪들이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장터를 이루는 중심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는데 한몫을 단단히 한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 광재우 장군은 남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강을 중심으로 의령과 창녕을 오가며 창녕의 석축산성인 화왕산성(사적 제64호)에서 장군과 의병 990명이 분전한 곳이다. 성내에는 삼지(三池)가 있는데, 이곳에서 용자(龍子)의 정기를 받아 창녕 조씨의 시조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다. 한편



〈그림 3〉 겨울철새 사진

이 삼지연이 지금은 산지 높지로서 다양한 수생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평천 주변 큰 마을인 대지면에는 만석군으로 알려진 창녕 성씨의 시조묘와 석동마을의 성씨 고가도 낙동강과 토평천을 오가는 물산을 중심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하천 주변의 넓은 농경지를 경작하여 탄탄한 삶의 기반을 쌓은 대표적인 가문이기도 하다.

한편 토평천과 우포늪의 생태계는 여러 차례 국가와 지역 정부, 학계 등에서 조사 발표한 바 있다. 원시적인 습지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이 광활한 늪에는 수많은 생물이 모여 살고 있다. 습지에는 부들, 창포, 갈대, 줄, 올방개, 봉어마름, 벼풀, 연꽃 등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으며, 여름이면 가시연꽃이 늪을 수놓으며, 가을이면 갈대와 억새가 물결을 이루며, 겨울이면 철새들이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이처럼 다양한 생태계를 간직한 우포늪은 습지 식물과 수서 곤충, 어류, 조류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따라서 탐방객들에게는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관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집중 호우나 홍수기가 되면 낙동강의 수위가 평상시보다 7~8m 이

상 상승하고 상승한 낙동강 본류의 수위는 토평천을 거슬러 올라가 우포습지의 집수역에서 내려오는 물과 함께 습지의 수위가 4~5m 이상 크게 상승한다. 홍수로 증가한 수위는 3~4일에서 길게는 10여일 정도까지 머물며 홍수에 견디지 못하는 육상식물들을 죽게 만든다. 그러나 원래 홍수에 잘 견디는 식물은 다시 자라게 되고 물위를 떠다니던 개구리밥이나 생이기래와 같은 부유성 식물은 제방의 언저리에까지 올라가 물이 빠지면서 말라죽게 된다. 또 일부는 본류로 떠내려가 하류로 이동하기도 한다.

4. 토평천의 현재 모습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토평천에 위치한 우포늪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지금의 우포늪 동쪽에 있는 대대제방을 축조하여 대대들을 개간하여 우포늪은 3분의1 가량 줄어들게 되고 제방을 만들어 홍수피해가 전보다 줄어들자 마을 뒷산 기슭에 동네를 이루고 살던 대대리 주민들도 그 아래 평평한 곳으로 대부분 내려와 살게 된다. 광복 이후, 1962년 12월



〈그림 4〉 성씨고가

백조(고니) 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오다가 1973년에 백조(고니)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되면서 우포늪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는다. 도시의 산업화와 농경지 확장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낙동강과 토평천에 제방이 만들어지고 주변의 우포늪과 같은 사물포, 옹호 등과 크고 작은 대부분의 늪지들이 농경지로 변화였다.

이때부터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있게 된다. 이용과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은 어로와 대징이, 고동 등을 채취하여 생활해 온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을 우려했고 환경단체는 보호구역 등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번의 공청회와 대화를 통하였고, 환경부는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듬해인 1998년 3월 2일에는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에 등록하고, 1999년 2월 8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던 사유지 20만평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하고 환경감시원을 두어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불법어로와 환경감시를 하고 있다. 현재 우포늪이 속해있는 창녕군은 물론, 지역주민과 민간환경단체들도 우포늪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30년대 일제하에 산미증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하천과 늪들이 농경지로 만들어지면서 독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토평천 발원지에서 조금 아래쪽인 고암면 감리저수지를 지나면서 낮은 제방 양쪽은 논으로 이어져 있다. 그러나 대지면으로 접어들면 낙동강의 범람으로 제방의 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우포늪이 가까워지면서 제방은 한껏 높아진다. 새마을운동과 태풍과 해일의 큰 피해가 생기면 제방을 더 쌓거나 보축하기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도 4대강 사업과 맞물려 강 안팎으로 제방을 더 높이고, 강변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3년 태풍 루사 때, 집중 호우와 안동댐의 수문 방류 등으로 갑자기 불어난 물로 토평천과 우포늪이 만나는 지점에서 독이 터지면서 관동마을과 대대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생겼다. 이후 제방을 높이는 과정에서 생태블록 부착 문제로 또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우포늪 쪽 유속이 적은 800미터 구간은 흙 제방으로 완성했다. 나머지 흐름이 빠른 구간은 생태블록으로 제방을 완성하여 습지와 철새를 보전하는 현명한 결정을 한 모범사례가 되었다. 지금 이 토평천 구간은 6월부터 노랑어리연꽃과 수생식물이 살아가기 적당한 곳이 되어 각종 야생동식물들의 다양한 서식처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토평천의 품인 우포늪과 연계하여 석동마을의 성씨 고가, 우포늪만 그리는 김선희 작가와 사진작가 정봉채, 대대 마을에 위치한 유진수 화가의 찻집 등은 지역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적 추상미술을 그리고자 했던 하인두 화백의 어린 시절 놀이터였다는 옛 가야 고분군들도 토평천을 내려다보며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랍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 중등> 갖가지 국내외 으뜸 경관지역으로 우포늪과 순천만은 쌍둥이 같은 자연보호구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들고 있다. 어쩌면 토평천의 오늪은 이러한 찬사에 걸맞는 모습으로 향후 어떻게 변화해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5. 토평천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

지금 토평천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먼저 따오기복원센터가 위치한 둔터 마을 뒤편 마을인 다부터 아래쪽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우포늪 주변의 경

작지를 본래의 습지로 복원하여 기존의 보전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생태체험 공간마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평천의 물길을 더 넓혀 주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복원사업을 바탕으로 1930년대 이전의 강배후습지의 모습으로 차츰 되돌려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토평천은 하천의 생태계와 우포늪을 포함한 주변의 다양한 늪들을 되살리고, 생물다양성 유지와 종복원이 라는 사업을 통해 지구촌의 당면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체계적인 환경정책 마련과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제10차 랍사르총회에 즈음하여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따오기 한 쌍이 씨가 되어 이 땅에 사라진 종의 복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5-7년 뒤에 야생으로 방사할 시점에는 토평천과 우포늪 그리고 주변의 농경지와 마을, 야산들이 이들의 중요한 먹이터와 휴식장소로 이용될 것이다. 이럴 때 토평천 주변의 자연환경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행정, 환경운동가들이 힘을 모아 종복원을 통한 지역의 생태적 브랜드를 높여 주민들의 생산물들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그림 5〉 토평천과 우포늪이 하나 되는 하천의 범람 모습

최근에는 토평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습지들의 생태적 복원을 위해 환경부의 생태보전기금을 활용하여 수공이 앞장서서 가항늪을 복원하는 사업에도 지역주민과 행정의 적극 참여해 가는 형국이다. 이제 작은 도랑과 하천 그리고 습지의 생태적 복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토평천의 변화를 주도할 정책적 단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습지센터(혹은 한국습지과학원)가 토평천 하류의 상리 저미골(이산마을)에 건립된다. 2012년부터 업무를 시작할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하는 일은 국가습지 관리체계 개선 등 습지정책 효율과 추진을 위한 습지관련 조사, 연구, 홍보 등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인 것이다. 특히 낙동강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지천에는 크고 작은 습지들이 수없이 산재하고 있다. 이런 습지들을 복원하여 생태계의 복원과 수자원의 관리, 생태관광의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가 기대된다.

어느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꿈을 꾸고 있다고 했다. 글쓴이도 토평천 속의 우포늪과 낙동강의 도도한 흐름을 수십 년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하천의 폭이 줄고, 하천 생태계가 훼손된 것을 조금씩 복원하는 일에 습지보전운동가로서 기여하겠다는 꿈을 꾸어 왔다. 다행히 정부도 2008년 랍사르 총회 이후, 과거에 토평천에 산재했던 늪들을 복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내내 강조했던 생태계 파괴를 줄이고, 과거 사라진 습지 등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은 강변의 배후습지와 지천의 하폭을 늘리면서 홍수조절과 수자원관리, 생태계 복원에 많은 예산 확보와 지역주민 참여형 생태계 복원 계획을 할 때이다. 토평천으로 흘러드는 십이천은 상류부에 우포늪과 같은 규모의 용호별(늪)을 지나 물길이가 흘러든다. 이 용호별과 우포늪이 제대로 복원된다면 창녕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6. 마치는 글

봄비가 내린 뒤에 토평천에는 겨울철새들이 먼 시베리아

로 떠나고, 하천 주변에 심어 놓 마늘과 양파 밭에는 농부들의 손놀림이 바빠지고 있다. 토평천에서 우포늪으로 흘러들어오는 50만 평이 넘는 대대들에는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랍사르 총회 이후 10년 계획으로 우포늪 둔터 지역을 중심으로 따오기를 비롯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복원사업 추진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을생태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습지 주변의 농업을 친생태적으로 전환하여 자연과 농업이 공생하면서 도시의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프로그램에서 따오기 복원이라는 소재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우포늪에서 따오기가 살려면, 늪에 인접한 논과 하천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지역주민과 습지보전단체, 지자체가 먼저 정부를 향하여 정책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따오기 복원은 환경부의 생물자원 보전정책을 뛰어넘어 농림부와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회생의 길을 제시해야 하고, 문화 관련 부서는 천연기념물 복원과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생태관광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보전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연생태보전 정책으로 전환, 지역주민 스스로 훌륭한 자연유산을 가꿀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2006년 국가습지보전사업 낙동강시범지역관리단에서는 우포늪 보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주변 23개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한 주민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전지역의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제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인센티브제도는 전무하였다. 비슷하게나마 적용시킬 수 있는 제도가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의 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주민참여의 자연환경보전 제도'로 환경부에 의해 정의된 농작물피해보상계약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이 제도의 수혜자가 법적으로 생태보호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 등 법에 의해 이용권이 제약을 받는 지역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우포늪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그림 6〉 봄비가 내린 뒤의 우포늪의 왕버들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장이 없었다. 물론 정보교류와 전달의 장도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우포늪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는 환경운동가나 환경행정, 그리고 관련법과 제도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시각과 점점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포늪에 날아오는 새들의 이름이나 의미에 대해 외부전문가나 행정기관은 말할 수 있어도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입도 뿔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포늪은 주민들로서는 단지 귀찮은 애물단지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습지를 통한 생태교육의 수혜자에 마땅히 주민들도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습지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인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이 그리는 우포늪을 통한 전망, 그리고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꺼리'를 발굴해내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보편적 경제행위가 습지보호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습지보호지역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그에 따른 목표와 제도적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우포늪 주변지역 같은 경우,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우포늪의 청정이미지를 브랜드화하는 것이 지역주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창출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우포늪 주변 지역 중에서도 어민들이 밀집된 소목마을의 경우는 전통적 어로행위의 특성을 살린 체험관광지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보전지역에서의 갈등문제, 더 이상 주민들에게 비보전지역과는 상대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다. 보호지역으로 인해 재산권이나 행동권에 있어서 제약은 받는다면, 보호지역으로 인해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한 건에서는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우포늪이 개

발제한으로 땅값을 하락시키는 애물이라면, 우포늪으로 인한 개발제한 때문에 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비보호지역에 비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 2007년 수립된 국가습지기본계획에는 지역주민 인센티브 정책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습지보호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근거가 없어 주민인센티브 정책을 개발할 수 없었던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개발과 적용을 기대한다. 덧붙여 하루빨리 습지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토평천을 따라 답사하다 보면 주변 곳곳에는 옛 선현들의 발자취와 특히 한강 정구선생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남명과 퇴계, 덕계 오건의 수제자인 한강 정구선생(1543-1620; 중종-광해)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로 선조10년인 1578년에 창녕 현에 재임하면서 흥학교민(興學教民)을 현치(縣治)의 요체(要論)로 삼아 현 내에 8개의 서당을 세우고 서당마다 인근의 덕망 있는 선비로 선생을 삼아 가르치게 하였다. 선생은 유교를 진흥시켜 땅에 떨어진 도덕과 피폐한 풍속을 교정하는 동시에 다스리는 자는 가혹한 정치를 피하고 백성은 자신의 업에 즐거워하며(名樂其業), 미풍양속을 진작

발흥(振作勃興)하여 우수한 인재와 국가동량을 양성 배출하였다. 당대 최고의 성리학 이론가로서 35세의 나이로 창녕현감으로 재임하면서 꿈꾸어왔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창녕현은 크나큰 행운이었고 창녕군 발길 닿는 곳마다 선조의 발자취가 남아 오늘에 전하고 있다. 이러한 옛 흔적을 하천생태계의 복원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의 회복을 위해 당시 토평천 곳곳에 세워졌던 서당의 복원까지도 꿈꾸어 가는 것도 후손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특히 토평천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생태문화 복원사업에 스스로 나서도록 우포늪과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의 기구를 만들고 행정과 전문가들의 지원 하에 중장기적 과제별로 인식 증진 프로그램의 가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우평(2007), "한국지형산책", 푸른숲.
이민부(2009), "이민부의 지리블로그", 산림출판사.